

특집 도시, 헤게모니, 그리고 투기적 도시화

## ‘강남화’의 사회-문화적 과정과 헤게모니적 영토성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모색\*

Socio-Cultural Processes and Hegemonic Territoriality of *Gangnam*-ization:  
Exploring Alternative Perspectives on Speculative Urbanization

박배균\*\* · 박양범\*\*\*

본 논문은 강남식 도시화가 확산되는 강남화 과정을 관계적 장소관, 정동적 도시론, 네트 워크적 영토성, 헤게모니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강남화에 대한 대안적 설명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투기 억제에 위한 경제-제도적 해법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도시 중산층의 투기적 욕망이 형성되는 사회-문화-공간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강남식 도시화가 어떻게 담론적으로 재현되는지, 그러한 재현들이 강남화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정동들과 어떻게 접합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강남화가 헤게모니적 도시성으로 자리 잡아 도시 중산층의 지배적 관념과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를 시론적으로 탐색한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본 논문은 강남화의 헤게모니는 어떤 단일 중심의 강력한 힘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의 강남식 신도시들과 다종의 공간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매우 다양한 물질적·담론적·정동적 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만들어진 매우 불균등하고 울퉁불퉁한 역사-지리적 과정의 결과물임을 밝힌다.

주요어: 강남화, 정동적 도시성, 도시 구성체, 헤게모니, 투기적 도시화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3088606).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 센터장(geopbg@snu.ac.kr)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 연구보조원(pyb2221@snu.ac.kr)



##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의 상승은 언제나 큰 사회적 논란거리였다. 특히, 1970년대 초 강남 개발이 시작되고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와 자산 가격의 격차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그 이후 부동산 투기는 항상 한국 사회와 도시의 중요한 문제점이자 정치적 이슈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기적 도시화는 한국의 비판적 공간 연구에서 항상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시장의 합리성 혹은 자본주의 정치-경제 구조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해법 또한 대부분 경제-제도주의적 접근법을 취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투기 억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기존 연구는 투기적 도시화의 핵심적인 배경인 도시 중산층의 투기적 욕망을 학술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해법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시 중산층의 투기적 욕망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합리성의 논리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든 사회-문화-공간적 과정의 복합적 결과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투기적 도시화를 사회-문화-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소위 ‘강남화’로 불리는 사회-문화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강남식 신도시를 열망하는 정동과 도시적 재현이 도시화 과정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한 시론적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sup>1)</sup> 한편, 강남화라는 지배적 과정은 한국의 도

---

1) 여기서 왜 굳이 ‘강남화’란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박배균-황진태(2017)는 한국의 투기적 도시화를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로 표상되는 “강남화” 과정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1970년대 강남에서의 신도시 개발과 그를 모방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신도시 개발 과정을 통해 ① 신도시 건설과 ②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판 투기적 도시화 기제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시화 과정을 관통하는 정치-경제적 힘에 의해 구조결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공간적 힘과 과정이 복합적이고 우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접합되면서 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강남화의 복합적이고 우발적인 과정은 ① 사회-문화-공간적 힘과 과정들이 접합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이해와 ②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현실의 다양한 강남식 신도시의 삶과 일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야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강남화에 대한 그러한 ‘이론적 기반과 경험적 근거를 갖춘’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 2.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기존 논의들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부동산 이슈에 집중하면서 투기 억제를 위한 경제-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부동산 투기의 심화로 인해 주택 비용이 급등하여 주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문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① 신자유주의화의 진전으로 인한 주택의 금융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요인(지주형, 2022; 광노완, 2012; 이병천, 2022; 김용창, 2019; 2021; 2022a; 2022b; 김도균·양종민, 2023), ②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기댄 독점 자본이 중요한

---

않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미 한국에서 금융화된 투기적 주체들이 형성되었다. 즉, 한국의 강남화를 단순히 신자유주의 도시화 혹은 투기적 도시화라는 일반적 과정으로 환원하여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에서의 신도시 개발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담론적 장치, 정치-경제적 경합 등을 통해 투기적 열망이 중산층에게 확산되는 아주 구체적인 사회-공간적 과정을 통해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도시화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강남화’의 구체적 과정을 살펴지 않고, 투기적 도시화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책을 논하는 것은 표피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표 1〉 투기적 도시화의 원인에 대한 경제-제도적 관점의 설명들

		주요 내용	주요 문헌
투기적 도시화 주요 원인 진단	(전 지구적) 불로소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화, 금융자본주의 발달, 주택의 금융화 등 글로벌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불로소득 자본주의화	지주형(2022) 곽노환(2012) 이병천(2022) 김용창(2019; 2021; 2022a; 2022b) 김도균·양종민(2023)
	(한국적) 자본주의 특수성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지리적 특수성에 주목.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및 그것으로 만들어진 독점적인 토지와 자본 소유	백육인(1989) 장상환(2004) 전강수(2007; 2017) 이태경(2020)
	정책 실패	한국 권위주의 정부 시기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부패한 정치세력과의 결탁 또는 과거 정권의 정책 실패	이진순(1990) 이정우(2007) 박종구·이영범(2009) 이준구(2017) 김태동(2019)
	개인 차원 욕망과 책임	투기라는 행위에 대한 개인의 과도한 욕망, 그것을 이루는 윤리적/정치적 태도	이재율(2006) 김승욱·이창석(2009) 강해주(2020) 조용근(2021)

자료: 저자 작성.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백육인, 1989; 장상환, 2004; 전강수, 2007; 2017; 이태경, 2020), ③ 부동산 투기를 통해 초과이익을 누리는 세력들과 결탁한 부패한 정치세력의 정책 실패(이진순, 1990; 이정우, 2007; 박종구·이영범, 2009; 이준구, 2017; 김태동, 2019), ④ 투기라는 타락한 행위를 자행하는 개인들의 욕망(이재율, 2006; 김승욱·이창석, 2009; 강해주, 2020; 조용근, 2021)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문제 진단을 바탕으로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① 조세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투기적 행위를 억제하는 규제와 장치를 강화하고, ②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며, ③ 주거 복지를 강화하여 투기적 도시화로 인해 양산되는 주거 약자들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제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은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투기적 도시화를 특정한 구조적 조건(불로소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한국 독점자본주의의 특수성 등)에 의해서이긴 혹은 개인의

비도덕적 판단에 의해서이건 ‘투기’라는 매우 위험하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행위의 결과로 바라보면서 이를 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접근법의 핵심 논리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혹은 법-제도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제시된 ‘투기’라는 행위에 대한 각종 경제적 제약(예를 들어, 세금)과 법-제도적 규제들은 의외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도시 중산층들로부터의 다양한 반발과 부정적 평가에 직면하여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저하된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투기적 도시화를 부동산을 둘러싼 경제적 과정의 결과로만 바라보고, 투기적 도시화를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화-정치적 과정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지닌 투기적 욕망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학술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소홀하였다.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투기적 주체로 형성된 것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설명되기 힘든, 사회-공간-문화-정치적 과정의 복합적 결과물이다. 따라서, 투기적 욕망에 대한 과도한 악마화와 도덕적 비난에만 기대 반투기적 정책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끌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반발을 초래하여,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투기적 도시화를 부동산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기존 입장의 배후에는 투기적 도시화를 주로 불로소득 자본주의나 자산의 금융화 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이론적 경향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경제적 과정의 구조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의도치 않게 투기적 도시화 과정을 자본주의 도시화의 구조적 힘에 의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이데올로기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자본주의의 구조적 힘에 대한 비판적 지적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실천과 정치적 힘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의 상황에서 이러한 식의 설명은 본의 아니게 자본주의 도시화의 지배적 힘을 인정하고 그에 순응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 기능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의 투기적 도시화를 설명함에 있어 이러한 경제-제도적 관점과 거리를 둔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하고 있다(박배균·황진태, 2017; 최시현, 2021a; 서영표, 2021; 송은영, 2022). 이 연구들은 도시 중산층의 투기적 욕망을 보다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로서, 투기적 도시화를 설명함에 있어 이데올로기와 담론의 역할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배균·황진태(2017)가 편집한 책에 실린 여러 연구는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재현을 분석하여, 어떻게 한국의 도시 중산층이 투기적 주체로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하였다. 이에 더해 서영표(2021)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의 지배적 심성구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최시현(2021a)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여성의 일로 재현되는 과정을 문화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도시 중산층의 투기적 욕망이 만들어지는 사회-문화-공간적 맥락과 과정을 학술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점의 연구들도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주류적 담론과 재현에만 과도하게 집중하여 자칫 그러한 재현이 한국의 도시민들이 강남식 도시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지게 되는 다양한 감정과 정서, 그리고 그에 기인한 갖가지 행동들을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박배균·황진태(2017) 편서의 연구들에서는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도시 중산층의 열망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데 기여한 강남화 담론과 도시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투기적 도시화가 정치-경제적 과정뿐만 아니라, 도시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규정하는 담론과 이해방식, 그리고 그에 기반한 특정한 삶의 방식과 문화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음을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주류적 담론과 재현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마치 한국의 모든 도시민들이 부동산과 사교육에 대한 열망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

리고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한국 도시민들의 여러 복잡하고 차별적인 경험과 그로 인한 복합적 감정과 정서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함 속에서 드러나는 강남화 담론의 균열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 3. 강남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의 모색

신진숙(2021)이 제대로 지적하였듯이, 강남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은 한국의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강남식 도시화의 복잡한 과정과 다양한 삶의 모습과 경험, 그리고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여러 감정, 느낌, 정동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강남화를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 1) 관계론적 장소관과 정동적 도시론

강남화에 대한 주류 담론의 이데올로기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2000년대 이후 비판적 도시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영감을 던져주고 있는 관계론적 장소관과 정동적 도시론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지역과 장소에 대한 관계론적 관점은 2000년대 초반 영국 지리학계에서 장소와 지역을 특정 공간적 범위와 면적을 지닌 지리적 단위 내부의 자연환경, 인문적 조건의 결합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영토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박배균, 2015). 관계론적 관점의 저자들은(Allen et al., 1998; Amin, Massey & Thrift, 2003; Massey, 2004; 2005; Amin, 2004; Allen, 2004; Amin & Thrift, 2002) 영토적 폐쇄성보다는 네트워크적 개방성과 관계성의 측면에서 장소와 지역을 바라보려 하였다. 특히, 이들은 장소나 지역을 내적으로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소 안과 밖의 여러 이질적 요소의 개방적이면서 우발적인 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생동적인(becoming) 것으로 보았

다(MacLeod & Jones, 2007: 1178; Allen et al., 1998: 65). 또한, 지역이나 장소는 다양한 공간적 범위를 가로지르며 펼쳐져서 지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트워크 안에 위치하는 어떤 지점이고, 동시에 상품, 기술, 지식, 사람, 금융, 정보 등이 이동하고 순환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Amin, Massey & Thrift, 2003: 25). 따라서, 지역과 장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정은 해당 지역과 장소의 안과 밖을 가로지르며 마주치고 만나는 여러 다양한 행위자와 힘들의 네트워크적 위상기하학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Amin, 2004: 33).

이러한 관계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강남화 현상을 보게 되면, 강남식 도시화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강남 따라 하기’의 과정을 도시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주체들과 힘들의 연결과 마주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현하는 ‘생동(becoming)’의 역동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강남화를 ‘강남’이란 장소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도시화 모델이 다른 도시와 지역으로 일방향적으로 확산되고 복제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강남식 도시화 과정을 물질적·담론적으로 구성되고 재생산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지역과 도시의 행위자와 힘들이 서로 얽히고 연결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단일 중심의 강력한 권력이 강남화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강남 따라 하기”란 표현 속에 잠재해 있는 ‘강남 vs. 비강남’의 이분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다.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의 과정은 다양한 힘과 행위자들 사이에 도시, 지역, 스케일을 뛰어넘고 가로지르며 발생하는 만남과 마주침의 관계적 역동성 속에서 결코 온전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강남과 비강남은 재현된 이미지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에서 강남과 비강남은 뒤섞여 있으며, 수없이 이질적인 ‘강남적 비강남’과 ‘비강남적 강남’들이 혼종적 형태로 구성되고 존재할 뿐이다.

관계론적 장소관은 정동적 도시론과 이론적 친밀성을 지닌다. Thrift(2004)는 도시를 휘몰아치는 정동의 소용돌이라고 묘사하면서, 도시는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솟아나며 가라앉는 분노, 두려움, 행복, 기쁨 등과 같은



정동들로 채워져 있고, 이 정동들이 다양한 매개체에 접촉하여 여기저기 이동하고, 순환하면서 도시의 수많은 사건들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도시를 정치-경제적 구조와 물질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보고 개념화하던 기존의 학문적 경향과 확연히 다른 입장으로, 도시를 이해함에 있어 합리적 이성, 논리적 인과 관계 등에 대한 집착을 넘어, 감정, 느낌, 정동과 같은 비이성적이고 문화-심리적인 차원에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신현준, 2016: 287).

정동(affect)은 현상학적 전통, 정신분석학적 전통, 스피노자식 전통, 다윈주의적 전통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해석되지만(Thrift, 2004), 스피노자와 들뢰즈의 관점에 바탕을 둔 정동 논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관점에 따르면 정동은 타자와의 마주침과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신체적 변용 혹은 그 역량이자 그러한 신체적 변이로 인해 촉발된 감정의 움직임을 의미한다(신진숙, 2021: 72; 고민경, 2020). 따라서, 정동은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신체적 변이를 통해 촉발된 정서이므로 특정한 주체를 지니기 이전의 전인격적 혹은 비인격적인 신체적 감응 상태이다(신진숙, 2021; 박정환, 2022). 즉, 정동은 인간의 인지적·재현적 개입이 들어가기 이전에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감각과 감정으로 이해되고, 이런 측면에서 정동(affect)을 감정(emotion)과 구별하여, 감정은 기존의 사회적 시스템, 문화, 언어, 개념 등에 의해 순치되고 포획되어서 사회적인 것인 반면, 정동은 그러한 사회언어적 고정화에 의해 포획되지 않은 선주체적, 선인지적, 선합리적, 선문화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신현준, 2016: 294~295). 정동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강남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은 그러한 재현된 담론과 개념화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미시적 경험과 정동들의 흐름, 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되는 보이지 않는 활력과 역동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관련하여 신진숙(2021: 71)은 “강남에 대한 재현과 이데올로기로 포괄되지 않는 도시적 삶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정동은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변용이나 변이로만 머물지 않는다. 정동

은 개인들 사이를 흐르면서 발현되고 변화하는 초인격적(trans-personal)인 성격을 지니는데, 이는 정동이 어떤 사람의 “내부가 아닌 특정 상황 속에서 나타나 사람과 물질(혹은 장소) 사이에 흐르고 유통하는 정서의 움직임”(박경환, 2022)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동은 특정 도시 혹은 장소에서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정동의 전염이 일어나며(Anderson, 2014), 이러한 정동들이 모이고, 흠어지고, 흘러가며,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집합적 분위기로서의 정동이 형성된다(신진숙, 2021; Anderson & Holden, 2008). 특히, 도시와 장소에서 특정의 집합적 정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양한 정동들이 기존의 제도, 재현, 욕망 등과 우발적으로 얽히고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도시는 이질적인 정동들이 다양한 장치들과 매개하고/매개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상블라주”이다(신진숙, 2021: 73).

도시를 여러 다양한 정동들의 우발적이고 복합적인 이상블라주로 보는 이러한 정동적 도시론은 강남화의 지배적 재현을 상대화하여 그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강남화의 사회-문화-공간적 과정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강남화 담론의 영향력은 그 재현의 이데올로기적 권력 때문이 아니라, 강남식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질적 정동과 느낌들이 우발적으로 결합되면서 패턴화됨을 통해 발현된(emergent)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블라주로서의 강남 만들기의 힘은 특정한 구조적 힘이나 인과적 작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안정적이며 고정적인 권력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우발적으로 배치, 연결, 발현되어 만들어진 것이어서, 다른 사건과 계기에 의해 그 배치와 연결이 분리되고 해체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강남식 도시화 과정은 피할 수 없어 순응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사회적 저항과 대안적 실천에 의해 거부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힘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영토화와 헤게모니

앞서 논의한 장소에 대한 관계적 이해, 도시에 대한 정동적 해석은 강남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을 상대화하여 강남식 도시화와 관련된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경험, 감각, 정동을 파악하여 강남화의 복합적이고 균열적 역동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두 관점 모두 ‘영토 vs. 네트워크’ 혹은 ‘재현 vs. 비재현’과 같은 경직된 이분법에 빠져 마주침과 만남, 관계와 흐름, 감각과 정동 등의 역할에 대해 다소 과장된 주장을 제시할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 영국 지리학계에서 관계론적 장소관이 처음 제시된 이후 이 관점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 중 네트워크적 연결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관계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주목할 만하다. 도시와 지역이 도시 안과 밖의 다양한 관계와 연결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관계론적 주장이 유의미하지만, 일상에서 마주치는 현실 정치는 많은 경우 영토적으로 동원된 ‘의존의 공간(spaces of dependence)’과 그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연대의 정치(politics of engagement)’에 기대어 이루어짐을 인정해야 한다는 MacLeod & Jones(2007: 1185)의 주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Jonas(2012)는 과도하게 단순한 관계론적 관점은 ① 네트워크와 영토는 배타적으로 대립하는 것이고, ② 이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영토적 정치는 구식이고, 편협하며, 반동적인 것으로 가정된다는 Morgan(2007)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관계론적 관점이 영토와 영역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관련하여 Jessop, Brenner & Jones(2008)는 사회적 관계들의 공간성을 영토(territory), 장소(place), 스케일(scale), 네트워크(network)라는 4가지 차원의 사회-공간적 관계로 설명하면서, 각 차원들은 각각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공간적 형태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과정의 성격에 의해 언제든지 다른 차원의 사회-공간적 관계로 변화 가능한 역동적인 과정의 한 순간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협소한 관계론적 관점처럼 이들 사회-공간적 차원들 중 네트워크 혹은

영토와 같은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면서 과도한 인식론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Painter(2006)는 네트워크와 영토를 대당관계(opposition)로 두는 이분법적 개념화를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네트워크적 영역성(networked territoriality)” 개념을 제시한다. 여기서 영토는 폐쇄된 공간으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행위자와 힘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복잡한 네트워크의 효과로 인해 구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영토는 사회·정치적 과정에 독립변수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구성하는 수많은 조직, 제도,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는 네트워크적 영역성에 의존해 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Painter, 2007: 28). 영토는 길거나 짧은 여러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특정 국지적 상황 속에서 겹치고 만나는 과정에서 영역성이 발현되고, 그러한 네트워크의 효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네트워크적 연결과 관계성은 영토를 약화시키는 힘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국지적 뿌리내림과 영토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네트워크는 어떤 대상과도 연결되는 무한정의 개방적 연결성을 지닌 것으로 흔히들 바라보지만, 실제로 네트워크의 관계성은 모든 곳에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특정 장소와 위치를 중심으로 국지화되고 고정되어 영토적으로 뿌리내려지는 경향을 보인다(Painter, 2006; Pierce, Martin & Murphy, 2011).

Massey(2004; 2005)는 이러한 뿌리내림을 통해 장소가 만들어진다고 보았고, 그 장소들을 여러 개인들이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과정을 통해 함께 그려낸 시공간적 궤적의 꾸러미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관계적 장소 만들기(relational place-making)’(Pierce, Martin & Murphy, 2011)의 과정은 정동적 도시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동적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흡사하다. 왜냐하면 장소는 다분히 정동적 성격이 강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장소는 일상에서의 반복적인 사회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고 재구성되며, 장소 안과 밖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만남, 마주침, 상호작용, 관계 맺기의 실천과 수행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곳이다(박배균, 2010: 505). 그리고, 이러한 장

소 만들기의 실천 과정에서 “특정 상황<sup>2)</sup>에서의 정서적 움직임”(박경환, 2022)으로 묘사되는 정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특정 장소를 바탕으로 국지화되어 형성된 연결과 관계들은 우발적인 만남과 비고정적인 흐름의 상태로만 머물지 않고, 좀 더 강한 응집력과 권력적 질서를 지닌 관계로 영도화되기도 한다. 특히, 관계적 장소 만들기의 과정에서 여러 장소 프레임이 경쟁하다가 특정의 장소 프레임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데(Pierce, Martin & Murphy, 2011), 이 과정에서 장소의 영도화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해당 장소에 대한 국지적 의존성과 고착적 이해를 강하게 가진 행위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소의 성격을 만들고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장소의 영도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크다(Cox, 1998a; 1998b; Harvey, 1982; 1985; 1989). 이러한 영도화의 과정에서 도시에서의 여러 이질적인 정동들의 우발적 얽힘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블라주로서의 집합적 정동은 더 이상 우발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장소적 의존성과 고착적 이해를 지키려는 의지와 전략적 실천이 개입되어 특정 도시/장소를 지배하는 분위기와 집합적 정동, 그리고 관련된 재현들이 형성되는데, 이는 장소를 구성하는 수많은 연결과 마주침의 역동적 과정이 일시적으로 응결되어 특정의 장소 만들기 실천이 헤게모니적 지위를 차지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장소의 영도화를 설명하기 위해 ‘헤게모니’ 개념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여러 이질적 관계와 연결들이 만나고 마주치면서 지속적으로 생동하는 특성을 지닌 장소가 특정의 폐쇄적이고 고정된 영토적 질서로 응결되는 과정을 구조결정적 방식으로 보지 않기 위함이다. 헤게모니 개념은 그람시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백일순·김주락·이승원(2023: 142)에 따르면 그람시(2006: 17~18) 헤게모니를 “특정 집단의 경제적 이익과 그를 둘러싼 가치와 목표가 그 집단을 뛰어넘어서 다른 집단들에게도 보편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그들이 앞선 특정

---

2) 이때 ‘상황’이란 특정 공간, 그 공간에 속한 사람과 사물, 그리고 그들의 시간적 궤적을 총칭한다.

집단의 입장과 목표를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지적·도덕적 리더십”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그람시는 여전히 헤게모니를 구성하는 주체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의해 선형적으로 결정된 노동계급과 당으로 헤게모니를 구성하는 주체를 인식하여서 구조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람시의 논의를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라클라우와 무페(라클라우·무페, 2012; 무페, 2019)는 계급 본질적이고 특권적인 헤게모니 주체 설정은 불가능하다는 반본질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헤게모니를 “상이하고 이질적인 것들을 구조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인과성이 아닌 욕망과 정동적 차원에서 접합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특정한 ‘집합적 정체성’ 또는 ‘집합의지’로 동원하는 실천”(백일순·김주락·이승원, 2023:142~143)으로 보았다.

강남화를 둘러싼 도시적 이상블라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질적 정동들의 우발적 접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접합과 연결을 특성의 의지와 전략을 통해 만들어 내려고 하는 헤게모니 실천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강남화가 벌어지는 각 장소들에서 장소특수적 과정과 맥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강남식 도시개발의 과정을 통해서 기술, 제도, 사회적 관계, 관습 등이 구조적으로 결합되고 응고되어 장소고착적인 ‘구조화된 응집(structured coherence)’(Harvey, 1985)이 발생하면, 이를 중심으로 장소의존적 이해관계가 구성되고, 이러한 장소의존적 이해를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실천들이 펼쳐지게 된다(Cox, 1998a; 1998b). 특히 투기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토건 지향적이고 개발주의적인 성장동맹 정치, 학군과 사교육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이 역동적으로 펼쳐지면서 다양한 이질적 주체, 정체성, 정동들을 모아 하나의 집단·의지 혹은 도시 이상블라주로 엮어내는 헤게모니 실천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 4. 강남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론적 탐구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관계론적 장소관, 정동적 도시론, 장소의 영토화와 헤게모니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강남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강남화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시론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대문자 ‘강남’에서 소문자 ‘강남들’로

강남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을 절대시하는 기존의 논의는 ‘강남’을 거대한 중심적 힘으로 재현하고 그것이 어떻게 복제되고, 욕망되는지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강남에 대한 이러한 재현은 ‘강남-비강남’의 이분법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강남을 절대화하고, 더 나아가 강남화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복합적인 경험, 감각, 정동들을 만들어 내어 의외로 균열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신진숙, 2021).

관련하여 김슨-그레이엄의 대문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슨-그레이엄(2013)은 자본주의의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로 자본주의를 하나의 단일한 거대 괴물로 상정하고, 그것을 지배적인 경제 형식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주의가 그 자체로 의기양양하고 포괄적이며 침투적이고 확장지향적이어서 다른 경제 형식을 정복하고 주변화하며 침범함을 당연시하는 담론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대문자 자본주의의 담론 체계하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주 왜소하게 보고 자본주의의 지배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이처럼 강남을 대문자로 재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남의 지배력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고, 강남화 과정을 단일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하향식의 일사불란한 과정으로 상상하게 하며 그 절대적 힘에 순종하게 만든다.

김슨-그레이엄(2013)에 따르면, 대문자 자본주의의 지배적 재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단수성을 부정하고 수많은 소문자 자본주의를 상상하며 그 존재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자본주의를 그리 거대하고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실은 부분적이고 여러 사회적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김슨-그레이엄, 2013: 382).<sup>3)</sup> 비슷하게 우리도 대문자 강남에 대한 재현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소문자 강남들의 존재를 상상하면서, 강남화가 여러 이질적인 소문자 강남들을 생산해 내는 불균형하고 균열적이며 울퉁불퉁한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광고, 송도, 일산 등 수많은 소문자 강남들이 신도시 개발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소문자 강남들은 강남화 담론에 의해 재현된 대문자 ‘강남’을 복제하여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가치의 상승, 특권화된 사교육을 통한 중산층 지위의 재생산, 깨끗하고 잘 정돈된 현대식 주거 공간 거주와 같은 ‘코리안 드림’의 달성을 꿈꾸는 중산층의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이들 복제된 강남들은 결코 대문자 강남의 재현된 환상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다.

대문자 강남의 이상을 꿈꾸며 소문자 강남들의 아파트를 구입한 중산층 일부는 집값의 상승을 통해 주거 안정, 자산 축적, 쾌적한 주거 환경 거주,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 제공 등과 같은 코리안 드림을 달성한 사람도 있지만, 이미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오른 이후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집값, 경기에 따라 가파르게 오르내리는 아파트 가격과 그로 인한 불안정함과 피로감에 괴로워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엄청난 대출을 당겨 비싼 가격에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여 절망에 빠지는 등 기대와 다른 현실을 종종 마주치게 된다. 또한,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사교육과 학군을 꿈꾸며 강남식 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교육의 수준에 대한 실망, 어차피 ‘강남’의 학원에 가지 못하면 최고가 될 수는 없다는 좌절감 등

---

3) 김슨-그레이엄(2013: 383)은 이를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담요 같은 어휘를 걸어치우면, 그 아래에서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꿈틀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구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을 느끼며 대문자 강남과 다른 소문자 강남의 현실을 경험한다. 대문자 강남에 대한 지배적 재현과 소문자 강남의 현실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소문자 강남의 거주자들로 하여금 대문자 강남을 “강남 불패”, “대장주 강남”, “전국구 강남”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재현토록 하고(박배균·장진범, 2017: 39~41), 동시에 대문자 강남에 대한 열패감, 상대적 박탈감 등에서 비롯된 정동들을 발현토록 한다.<sup>4)</sup>

하지만, 소문자 강남은 대문자 강남을 완전히 따라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면서 강남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든 달성해 보려는 열망적 정동으로만 채워진 곳은 결코 아니다. 대문자 강남과의 괴리는 소문자 강남의 거주자들로 하여금 대문자 강남에 대한 담론에서 재현되는 코리안 드림의 이상적 모습과는 다르지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적응하여 나름의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면서 강남식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도시 중산층의 삶의 방식과 문화적 지향을 형성토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표 2>에는 소문자 강남이라 할 수 있는 일산과 광교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주거 환경과 일상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드러낸 인터뷰가 실려 있다.<sup>5)</sup> 이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듯, 이들 소문자 강남의 거주자들은 서울보다 나은 자연환경(예를 들어, 공기, 공원, 녹지 등)을 가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런 것을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현재 거주지가 만족스럽다고 말한다(남성 J, 여성 I 인터뷰). 어떤 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소문자 강남에서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비되는 서울이나 강남의 복잡하고 혼란한 주거 환경을 문제시하면서 서울이 이상적인 도시가 아니라고 선언하기도 한다(남성 L 인터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소문자 강남에서의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에 만족을 표하면서 안정적인 주거만 보장된다면 굳이 매매하지 않고 임대로

4) 황진태(2017: 430)의 연구에서 부산의 소문자 강남인 해운대 거주자는 “부산이 교육적인 면에서나 그 밖의 면에서 서울하고 격차가 너무 커”라고 한탄하면서 이러한 불평한 정서와 느낌을 드러낸다.

5) 이 표는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5개의 소문자 강남(서울의 노원, 경기의 일산, 수원외의 광교, 인천의 송도, 진주의 평거동/혁신도시)에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이전과 강남화의 경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표 2〉 대문자 강남과 다른 소문자 강남에서 나타나는 도시 중산층의 정서들**

“일단 서울보다 공기가 좋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공기 나쁜 걸 제가 싫어한다는 거를 일산 와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가끔씩 … 서울을 가죠 … 그러면 싫어요. 공기가 싫고 … 그리고 인구밀도도 확실히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덜 부대껴요… 그리고 … 병원도 여기는 종합병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암센터도 있고 … 이제 서울을 선망할 만한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고양시에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산 거주 50대 남성 J)

“저는 집에 큰 욕심은 없어요. 저희 남편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새 아파트에 입성해 봤잖아요. 상계동에. 그래서 저는 새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에요. 꼭 새 아파트가 저는 좋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냄새도 많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 저는 새 아파트, 새 동네에 대한 로망이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만큼 거주할 수 있다면 저는 임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산 거주 40대 여성 K)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도시는 일단 서울은 절대 아니구요. 이(광교) 정도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 제가 … 서울에서 살아봤잖아요.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살았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복잡하고 힘든 게 많거든요 … 주차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여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주말에 어딜 가게 되더라도 … 웬만하면 가평을 가든 에버랜드를 가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 주말마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인근에 다 있으니까.” (광교 거주 40대 남성 L)

“여기도 호수공원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 이제 신랑이 어딜 가더라도

공원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광고 호수공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 자기는 근데 여기가 너무 좋대요, 광고가. ... 살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어디서 봤는데 신도시 중에 녹지 그게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일단 호수공원 한 바퀴 돌면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광고 거주 40대 여성 I)

---

계속 주거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정도로 주거의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에 더 높은 비중을 두기도 한다(여성 K 인터뷰). 이처럼 소문자 강남들은 대문자 강남을 끊임없이 꿈꾸며 따라 하려는 욕망이 넘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문자 강남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의 태도와 지향이 활발히 모색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문자 강남이 강남식 도시화와는 달리 투기적 도시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인 도시의 상(象)과 비전을 제시하는 곳은 아니다. 소문자 강남들은 여전히 강남식 도시화와 투기를 통한 자산 가치의 상승, 사교육을 통한 세대 간 재생산 등의 전형적인 한국 도시 중산층의 욕망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다만 대문자 강남에서 재현되는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른, 보다 복잡하고 균열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강남화의 균열적이고 울퉁불퉁한 지리는 소문자 강남들 사이에서 표출되는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경험, 감각, 정동에서의 의미 있는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각 신도시들이 처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 사교육 서비스의 특성, 인근 구도심과의 관계, 서울과의 거리, 신도시 건설의 시기 등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 소문자 강남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중심적 욕망은 모두 다르다. <표 3>의 두 인터뷰 내용은 소문자 강남들 사이의 차이가 어떤지 잘 보여준다.<sup>6)</sup>

---

6) 이 인터뷰 내용들도 <표 2>와 마찬가지로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수행한 조사의 일부분이다.

**〈표 3〉 광고와 일산 거주자의 도시 감각 차이**

“돈이 생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강남 가고 싶겠죠… 결국 투자, 투자. 더 오를 거 아니까. 그래서 저희 집 화분에 팻말 같은 거 붙어 있는데, 거기에 남편이 **광고 찍고 압구정**… 어른들이 보고 되게 만족해하시더라구요.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 교육 환경도 약간 여기가 별로… 수지나 분당이나 아니면 영통이 학군이 제일 유명했으니깐 그쪽으로 학원을 픽업으로 다녀요. 그리고 여기에 학원들이 중고등 학원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좀 시킨다 하신 분들은 결국 중학교 되기 전에 분당으로 뜨시더라구요.**”(광고 거주 40대 여성 A)

“일산 고양의 형용사는 … 안정된 느낌인 것 같아요… **안정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거 단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강남 쪽은 주거 단지 느낌은 아닌 거 같아요. 강남은 언제나 바쁜 느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죠…

… 과외 한 달 비용이 한 100만 원 이상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껴서라도 교육은 무조건 시켜야 된다가 엄마의 생각이서 가지고, **엄마가 교육은 무조건 중점적으로 하셨어요.**”(일산 거주 20대 남성 B)

위의 두 인터뷰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듯, 광고 같은 경우는 거주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한 경제적 수익 획득에 대한 욕망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는 데 비해 사교육 시장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여성 A 인터뷰). 반면, 수도권 1기 신도시로 최초의 소문자 강남 중의 하나이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일산의 경우 거주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욕망보다는 안정된 생활에 대한 지향성을 더 강하게 표출한다(남성 B 인터뷰). 또한, 학원가와 학군이 발달하여 거주자들의 사교육에 대한 열망도 강할 편이다. 이처럼 대문자 강남의 재현된 이미지(부동산 가치 상승, 교육특구, 깨끗하

고 정돈된 신도시 등)는 현실의 수많은 소문자 강남들에서 부분적으로만 구현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리 속에서 강남을 복제하려는 강남화의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고, 수많은 굴곡과 균열, 덜컹거림이 복잡하게 혼재하면서 생동하는 (becoming) 과정이다. 강남화를 추동하는 힘은 결코 하나의 단일 중심에서 발생하여 한국 사회 전체로 일사불란하게 전파되고 퍼져나가는 과정일 수 없다.

그런데, 대문자 강남에서 소문자 강남으로 관심을 이전시키는 것은 강남화의 지배적 재현을 상대화하는 일에는 도움을 주지만, ‘강남 vs. 비강남’의 이분법적 재현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강남’이란 재현이 수많은 ‘비강남’이라는 타자화된 장소들을 전제로 구성되듯이, 대문자 강남의 지배적 재현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이 발굴된 소문자 ‘강남’들도 그들보다 못하다고 인정되어 ‘비강남’으로 타자화된 장소들을 전제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광고 살아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 광고 안 사는 사람들 속상하다 ... 그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광고 거주 40대 여성 C)

이 광고 거주자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듯, 소문자 강남의 거주자들은 비록 대문자 강남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열패감과 애증의 정서를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① ‘강남’을 복제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좋은 장소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② 그 주위에 ‘비강남’으로 인식되는 주변화된 타자들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대문자 강남을 중심으로 한 단일의 ‘강남 vs. 비강남’의 이분법적 재현 대신에 여러 다양한 소문자 강남들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여러 다양한 ‘강남 vs. 비강남’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의 재현과 그와 연결된 정동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소문자 강남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강남화의 과정은 ‘대문자 강남 vs. 소문자 강남’, ‘강남 vs. 비강남’의 두 가지 담론적 대립 상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구성되는 다중적 과정이다. 즉, ‘강남 만들기’와 ‘강남 따라 하기’의 과정은 대문자 강남과 수많은 소문자 강남들, 그리고 수많

은 강남들과 비강남들이 서로 연결되고 엮히고, 서로를 규정하고 구성하면서 관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표 3>의 여성 A가 표현한 “광고 찍고 압구정”에서 잘 드러나듯 소문자 강남들은 ① 강남을 복제하고픈 열망과 ② 영원히 찢 강남이 될 수 없다는 2등 시민으로서의 불안함과 열패감이 불편하게 공존하면서 소용돌이치는 곳이다. 그리고 동시에 ‘신화로서의 강남’ 만들기를 수행하면서 주변 지역의 다른 누군가를 끊임없이 주변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획득하려는 정서가 지배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한 외중에 서울 혹은 강남으로 상징화되는 기성의 지배적 도시의 이상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적 삶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들이 꿈틀꿈틀 싹트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문자 강남과 대비되는 소문자 강남들은 수많은 이질적 감정과 정서들이 교차하는 복합적이고 균열적인 공간이며,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의 율통불통한 지리가 만들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대문자 강남 대신 소문자 강남들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강남화의 과정을 바라보면, 강남화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지 않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투기적 도시화의 균열적이고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2) 지배적 재현에서 균열적 정동으로

앞서 논하였듯이 강남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은 그 재현 속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미시적 경험과 정동들의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따라서,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에서 포착되지 않는 일상적 삶의 경험과 그를 둘러싼 감각, 느낌, 정동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남식 신도시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강남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동들이 발생하며, 이들 이질적 정동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흘러가면서 강남화의 지배적 재현과 연결되기도 하고 혹은 탈구되기도 하면서, 강남화의 헤게모니적이지만 균열적인 지리가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찰과 탐구를 통해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이 절대적이지 않고 매우 균열적이고 불

안정하며 다면적임을 드러낼 수 있다.

신진숙(2021)은 강남을 정동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강남화의 지배적 재현과 담론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정동들, 그리고 이들이 집단화되어 만들어 내는 느낌의 구조와 정동의 분위기에 초점을 두어 강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상블라주로서의 강남 메타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① 중산층 사회의 사교육 시장을 만드는 불안이라는 정동과 교육의 조합, ② 신자유주의 사회에 만연한 불안정성의 정동과 집의 조합, ③ 아파트 키즈의 장소적 정동과 생태의 조합이라는 3가지 차원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즉, 사교육, 부동산, 아파트 키즈라는 3가지 차원에 초점을 두어 강남화의 정동을 살펴보았던 것이다. 이를 참조점으로 삼아 본 시론적 분석에서도 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불안과 희망의 정동, ② 사교육과 관련된 불안과 희망의 정동, ③ 신도시 키즈의 도시적 정동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초점을 두어 소문자 강남들에서 발현되는 강남화의 정동적 도시성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 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정동들

〈표 4〉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자가 소속된 연구팀에서 광교와 수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다. 이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듯, 소문자 강남 거주자들의 주택 구입은 반드시 주택의 교환가와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에 대한 합리적 계산에 기대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안감과 압박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많이 느꼈고, 그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을 토로한다(남성 E 인터뷰 참조). 불안감에 밀려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는 주위로부터의 칭찬에 행복감과 안도감이 들기도 하지만(남성 E 인터뷰 참조), 소문자 강남이라는 위치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면서(여성 D 인터뷰 참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다음에는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한다(여성 G 인터뷰 참조). 하지만, 어떤 이

〈표 4〉 광고/수지 지역 거주자 인터뷰 일부 발췌(2022년 12월~2023년 11월)

“2018년도에 결혼을 해서 전세를 2년 당연히 놓고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는 계속 그런 시기였거든요. 전세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세를 이제 빠른 기간 안에 파기를 하고...” (광고 거주 30대 남성 E)

“(광고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를 하셨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모님도 이제 좋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불안감이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저에 대해서 ...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광고 거주 30대 남성 E)

“(과감하게 집을 사셨는데 그다음에 집값이 확 올랐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내 판단이 옳았구나. 잘했다. (안도감 같은 게 들었나요?) 엄청 들었습니다. 이거를 못 탔으면 진짜 영원히 못 살 뻔 했겠구나...” (광고 거주 30대 남성 E)

“부동산 가격 방어가 ... 그러니까 서울은 진짜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경기도라서 불안한 그건 있어요. (광고가 수원 안에서도 강남과 같은 지위가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신가요?) 그래도 불안해요.” (광고 거주 40대 여성 D)

“강남 쪽으로. 서울로 가라고. 영등이가 무거우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 이제 저는 이제 송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그냥 투자 목적으로. 웬지 서울은 오를 것 같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광고 거주 40대 여성 G)



“(다른 곳은 결국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거라 보시는거죠?)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원의 마지막은 광고일거라는 생각은 있죠. 그런 믿음이죠. ... 수원 다른 데가 다 꺾이고 나면, **마지막까지 남는 데가 광고다.** 동탄까지 꺾이고.” (광고 거주 30대 여성 H)

“**분당까지 들어갈 걸 그냥 적당히 안주한 거죠.** ... 삶의 그 만족감이나 이렇게 모든 편의성에 가깝게 있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항상 아쉬움이 있어.** 내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안 했는데 나 왜 이렇게 됐지... 제 친구들 강북에 살고 하는 애들 다 강남으로 들어왔는데, 왜 나는 거기서 이렇게 밀려나온 느낌이 있잖아요.” (수지 거주 60대 여성 F)

---

들은 이와는 반대로 자기가 선택한 소문자 강남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더 긍정적이라는 희망의 정동을 드러내며 자족하기도 한다(여성 H 인터뷰 참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과감히 진입하지 못하고 현재의 거주지에 안주하고 말아서 서울이나 서울과 더 가까운 소문자 강남에 들어간 사람에 비해 더 주변부로 밀렸다는 후회 섞인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여성 F 인터뷰 참조).

최시현(2021b)은 한국에서 주택 구입은 공포, 불안감, 기쁨, 안도감, 아쉬움, 희망 등 수많은 감정과 정서로 충만한 ‘정동경제’의 과정임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주택을 둘러싼 이러한 정동경제의 과정은 모든 한국에서 똑같은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 필자가 소속된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둘러싼 정동들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곳은 광고, 송도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난 곳들이고, 일산, 노원 등 다소 오래된 신도시의 거주자들은 주택 구입과 관련된 감정과 정서를 그리 과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인다. 즉, 부동산을 둘러싼 불안과 희망의 정동들이 표출되는 정도와 방식은 다소 장소특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사교육과 관련된 정동들

강남식 신도시가 한국 중산층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의 성공 가능성뿐 아니라, 사교육의 중심지여서 중산층 부모들의 교육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오래된 신도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은 이미 침체되어 주택은 더 이상 매력적 투자의 대상이 아니지만, 장기간 발달해 온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도시 중산층을 끌어들이는 매력 포인트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사교육 중심지의 형성은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들을 끌어들이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표 5〉에서 잘 볼 수 있듯 강남식 신도시의 거주자들은 사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교육의 필요에 대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 가지는 불안의 정동에 의해 추동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산 지역 인터뷰의 응답자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강한 부담감과 불안감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고(남성 D와 남성 B 인터뷰), 동시에 자신 거주지의 교육 환경이 좋다는 데에 자부심과 안도감을 드러내기도 한다(남성 B 인터뷰).

### 〈표 5〉 일산 지역 거주자 인터뷰 일부 발췌(2022년 12월~2023년 11월)

---

“부모님이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이런 거에 진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 저를 그렇게까지 내몰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공부 쪽으로요.”  
(일산 거주 30대 남성 D)

“어머니가 낮은 대학이더라도 인(in)서울인 거 아닌 거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 심하신 분들은 엄청 심하고 막 진짜 애들 태워서 학원 보내고 앞에 카페에서 기다리시다가 태워서 다시 학원 보내시고 해요. 제가 불

때는 성적을 진짜 잘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에도 만족 못해서가지고 구박하시는 어머니들이 좀 계셨어요.**" (일산 거주 20대 남성 B)

"후곡마을 학군 뒤에 계속 있었는데 **후곡마을 쪽을 쪽 일자로 이제 학원가가 이어져 있어서** 거기서 학교랑 학원 다녔죠. 여기가 학군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서울 이런 데 비교하면 ... 막 엄청 그렇게 부모님들이 애를 잡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 학교 잘 가는 친구들도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일산 거주 20대 남성 B)

---

그런데, 사교육 시장의 상황은 소문자 강남마다 차이가 있다. 앞에서든 논하였듯이, 광교 지역에서는 아직 사교육 중심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광교 거주자들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감정과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반면, 오래된 신도시여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였지만 사교육 중심지로 발달한 일산의 경우 거주자들이 다른 신도시 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사교육 관련 이슈에 더 많은 관심과 열의를 드러내는 경향성을 보인다.

### ③ 신도시 키즈들이 드러내는 도시에 대한 정동

강남식 신도시 개발의 역사가 50년 가까이 되면서 아파트와 신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난 사람들이 성장하여 현재 여러 소문자 강남들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나름의 주거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어린 시절 강남식 신도시에서 자라고 성장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정체성과 심미적 감수성 때문에 도시에 대하여 나름의 독특한 취향과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이들은 신도시와 같이 잘 정돈되고 깨끗하여 새로운 느낌의 도시 경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서울과 같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들이 혼재된 다소 복잡한 공간 구성과 경관에 대해서는 정서적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표 6〉 신도시 키즈들의 인터뷰 일부 발췌(2022년 12월~2023년 11월)

“(그 뭐랄까 거리나 이런 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주택이랑 이런 게 잘 구분되어 있고, 살면서 이런 경관을 계속 보면서 사셨잖아요. 어때요?) 그렇죠 … 저는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다보니까 특히 서울 지역은 너무 막 번잡스럽고, 근데 다른 신도시들은 또 괜찮더라고요. 동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잘 정리되어 있고 하는데, 서울은 약간 이게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일산 거주 30대 남성 D)

“광고는 훨씬 더 신축스러운 거 같아요. 깨끗하고. 호수공원도 있고. … 백화점 생김 지도 얼마 안 됐고. (서울은 생각 안 하세요?) 저희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을 안 하고요. 서울은 일단 살아본 적이 기본적으로 없고. 서울 생활이 … 사실 너무 복잡스러워서요. 저 어렸을 때 평촌 쪽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신도시였었고. 신도시에 있다가 서울로 가면 사실 더 별로였어요. (평촌 쪽 거기는 뭐가 좋았어요?) … 그냥 편했던 것 같아요. 전철역도 근처였고. 전철역 근처로 또 상권도 형성되어 있었고. 아파트들도 다 새 거였던 것 같고. 정비되어 있었고…” (광고 거주 30대 남성 E)

“저희가 (주차 공간이) 엄청 널널해요… 지하 2층인데 항상 여유로워 가지고 신랑이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살고 있는 목동 아파트를 갔었어요. 저희 집 차를 댔는데 새똥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다 이중주차하고 … 그거를 딱 보니까 나는 아무리 그래도 거기 못 살겠다. 신랑도 …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애들 교육보다는 주거 환경. 일단은 주차가 너무 널널하고 편하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광고 거주 40대 여성 I)

“원래 강남 많이 가려고 여기(광고)를 한 건데, 실제로도 여기 사니까 그렇게 강남 같 일이 없는 것 같아요. … 그냥 여기 주변에도 다 있고 누릴 거 많이 있

고, 일단 카페 거리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 **맛집도 너무 많고 이쁜 데도 많고** 하니까 **굳이 서울 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광고 거주 40대 여성 I)

"저는 대구 시지에서 초중고 다 했어요. 시지는 거의 **학군지였어요... 신도시였죠** ... (주택을 고르실 때 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셨어요?) 신도시라는 게 가장 컸고요.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뒤에 광고산도 있고. 이 근처에는 도서관도 많아요. 이쪽에 '엘리웨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빙그렇게 돌아가면 백화점도 가도 되고. 만약 자연만 있었으면 광고가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강남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서울 살면 거기가 너무 좋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을 안 살아봤잖아요? 거기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광고 거주 30대 여성 H)

〈표 6〉에서 볼 수 있듯 강남식 신도시의 30~40대 거주자 중 어릴 때부터 강남식 신도시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신도시 키즈들은 서울은 번잡스럽지만 신도시 지역은 깔끔하다거나(남성 D 인터뷰), 신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 좋은지 모르겠다는(남성 E, 여성 H 인터뷰) 식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서울의 복잡함에 정서적 거부감이 너무 커서 자녀들 교육보다는 주거 환경이 더 중요하다(여성 I 인터뷰)고 다소 과장스럽게 선언하거나, 광고 같은 신도시에 인프라가 훌륭하고, 맛집과 이쁜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소비활동을 위해 서울에 갈 필요를 못 느낀다고(여성 I 인터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들 신도시 키즈들이 표출하는 정돈되고 깔끔하며 주거 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선호하는 정서는 강남화의 여러 측면과 복잡하고 울퉁불퉁하게 연결된다. 깔끔하고 정돈된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가 널리 확산될수록 강남식 신도시 주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더욱 높아진다. 이처럼 정돈된 신도시를 열망하는 감정은 강남식 신도시에서 주택의 교환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불안과 희망의 정동과 공명하면서 강남식 도시에 대한 투기적 욕망을 더

욱 증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돈된 신도시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가 반드시 투기적 욕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자산 가치의 측면에서는 강남식 신도시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서울의 지역을 복잡하고 번잡스럽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표 6)의 남성 D, 여성 I 인터뷰), 바쁘고 정신없게 느껴지는 강남보다 신도시가 더 안정적이어서 좋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표 3)의 남성 B 인터뷰). 이처럼 신도시 키즈들은 서울과 강남을 문화적으로 우월한 곳으로 바라보거나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높게 인정하여 거의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기성세대들과는 다소 다른 감각과 선호를 표출하기도 한다. 즉, 강남화에 대한 지배적 담론에 깊이 연관된 '강남 vs. 비강남', '대문자 강남 vs. 소문자 강남'의 이분법적 재현이 이들 신도시 키즈의 독특한 도시 정동들에 의해 비틀어지고 흠집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남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동들에 대한 이해는 강남화를 지향하는 욕망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계산, 그리고 그러한 합리적 언술에 기대어 만들어진 담론적 재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사교육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중산층의 불안감과 두려움, 투기를 통하지 않고는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기회가 없다는 절망감,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에서 각자도생의 삶으로 내몰린 개인들의 소외감, 어린 시절부터 신도시와 아파트에서 자라난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도시 경관과 분위기에 대한 친밀감 등과 같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서와 정동들이 강남화의 울퉁불퉁하고 복잡한 지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3) 강남화의 헤게모니적 영토성

강남화의 과정은 대문자 강남에 대한 지배적 재현이 가정하듯 하나의 중심에서 만들어져서 전 국토로 뿌려져서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되

어서는 안 된다. 강남화에 대한 이러한 식의 재현을 넘어서기 위해 필자는 이제 까지 관계론적 관점, 소문자 강남의 중요성, 강남화의 일상적 과정에서 발견되는 정동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Allen(2004)이 권력의 위치와 지리에 대한 관계론적 해석에서 강조하였듯이, 강남화를 추동하는 힘의 중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남화가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분산된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 확실히 관계론적 장소관과 정동적 도시성에 관한 논의들이 강조하듯, 권력은 어떠한 외부의 권위적인 중심에서 뻗어나와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 신체, 대상들 사이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수행됨으로써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Allen(2004: 23~24)에 따르면, 이러한 분산적 권력 개념은 자칫 권력을 모든 곳에 존재하여 명확한 소재지를 찾아낼 수 없고, 목표로 삼을 뚜렷한 랜드마크도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치적 참여와 실천을 동원할 여지가 너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관계와 연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마주침 속에서 여러 이질적 정동들이 발견되고, 그러한 정동들이 우발적으로 접합하여 도시의 이상블라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논하였듯이 도시에서 집합적 정동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질적인 정동들의 우발적 얽힘에 의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강남화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강남식 신도시들에서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주거, 도로, 통신, 대중교통, 교육, 부동산, 상가, 공원 등의 기본적 도시 인프라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기능과 성격이 형성되면서 일종의 '구조화된 응집'(Harvey, 1985)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응집된 사회관계들의 형성은 장소의존적 이해관계가 구성될 물적 조건을 만들어 내고, 특정의 상황 속에서 장소의존적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동원되면,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세력과 힘들이 도시/장소의 지배적인 분위기와 집합적 정동의 형성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그 도시와 장소를 지속적으로 생동하던 다양한 만남과 마주침, 관계와 흐름들은 일시적으로 응결되면서 영토화되기 시작한

다. 그리고, 영토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 발현되는 다양한 정동들을 나름의 의지와 전략을 통해 일부를 포집하여 엮어내고 다른 일부는 밀어내는 헤게모니 실천을 통해 도시의 집합적 정동과 지배적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도시에서의 지배적 분위기를 만드는 헤게모니 실천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백일순·김주락·이승원(2023)은 '도시 구성체(urban formation)'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들은 도시 구성체를 “도시적인 것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헤게모니적으로 (또는 담론적으로) 접합되어 형성된 복합체”(백일순·김주락·이승원, 2023: 139)로 정의하는데, 이는 도시 구성체를 구성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의지와 전략을 가지고 만든 지배적 재현들과 그 재현물에서 흘러넘쳐 담기지 못한 여러 정동들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다. 백일순·김주락·이승원(2023)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일종의 '교육특구'로 강남화된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시적 영토화' 과정을 사교육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헤게모니 실천과 담론적 재현, 그리고 그러한 재현에서 상징화되지 못한 다양한 정동적 효과들이 누적되고 증첩되며 우연적으로 얽히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특히, 증계동 은행사거리에 초점을 두어, 노원이란 소문자 강남에서 학군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구성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국가에 의한 '학군'의 제도화, 사교육 시장에서 사교육 업체들의 이해관계, 사교육 시장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지역의 성장연합, 지방정부의 '명문 학군' 육성 전략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강남식 신도시들에는 부동산업자, 학원, 맘카페, 부동산 개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 부동산과 사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세력들과 그들이 만드는 관계망이 존재한다. 이들은 도시개발과 사교육 시장과 관련하여 지역의 주류 담론과 여론을 만들고, 나아가 성장연합을 결성하여 보다 더 많은 토건적 개발이 추진되어 그들의 투기 욕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과 사교육 및 학군과 관련된 특정한 재현을 만들어 주민들의 투기와 사교육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불안감을 조장하여 지



역 주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소문자 강남들에서는 부동산과 사교육을 중심으로 특정의 이해관계와 감정 및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특정의 담론적 재현과 집단적 정동을 공유하는 도시 구성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24일 자 《경향신문》 기사는 인천의 소문자 강남인 송도에서 도시 구성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준다.<sup>7)</sup> 해당 기사는 송도의 ‘강남 따라 하기’에 대해 서술하면서, “송도는 ‘인천의 강남’, 인천 안에서도 ‘송도는 우리만의 세상’이라는 식으로” 인천과 분리된 특별한 지역인 것처럼 송도를 재현하는 담론이 팽배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부동산과 교육을 기준으로 한 경계 짓기와 구별 짓기를 통해 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또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 주민단체들이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2023년 9월 7일, 송도 주민단체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송도를 연수구에서 분리해 새로운 구로 독립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정치적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연합 정치는 송도라는 지역 스케일에서 부동산 개발이익을 중심으로 헤게모니 구성체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송도의 도시화 과정에서 발현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동들을 부동산과 사교육이라는 주인 기표를 중심으로 배열하여 헤게모니적으로 재현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처럼 송도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구성체’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송도에서 개발 이슈를 중심으로 한 현안들이 주로 정치화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송도의 가장 대표적인 개발 이슈는 서울로의 접근성을 급격히 높여주어 송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GTX-B 노선의 건설이다. 예를 들어, 송도의 대표적 부동산 이해 세력인 온라인 카페 ‘올댓송도’는

---

7) 《경향신문》, 2023.10.24. “‘제2의 강남’ 송도의 역설”.

2019년 1월 27일 송도의 센트럴파크에서 300여 명의 주민 및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GTX-B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sup>8)</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GTX의 건설은 송도의 대표적 숙원 사업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그러한 헤게모니적 분위기 속에서 심지어 오랫동안 토건적 개발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진보정당의 후보조차도 국회의원 선거 유세에서 GTX-B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sup>9)</sup>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발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구성체의 존재는 구조결정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성장연합의 전략적 기획이 도시 구성체 형성의 중요한 배경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와 의지가 반드시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의 일상적 경험과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 발현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동들이 우발적으로 접합되거나 탈구되면서 도시 구성체의 구체적 작동 방식과 내용들이 형성된다. 따라서, 도시 구성체는 중심성이 강하고 견고한 조직체가 아니라, 매우 균열적이고 새롭게 발현되는 정동적 힘들과 지속적으로 갈등, 타협, 상호작용하면서 항상 생동하며 새롭게 다시 구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송도의 성장연합과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구성체도 송도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만남과 마주침,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정동적 생정치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생동적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4) ‘누더기 강남화(variegated Gangnam-ization)’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중산층의 열망은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열망이 한국 중산층의 심성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박배균·황진태, 2017). 하지만, 본 연

8) 《경기일보》, 2019.01.27. “GTX-B 예타 면제하라’ 거리로 나온 시민들”.

9) 《이데일리》, 2020.04.04. “인천 여야 후보들, 총선 첫 주말유세 ‘적임자는 바로 나’”.

구는 한국 도시 중산층의 투기적 열망과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선호를 하나의 강력한 중심에서 뻗어나와 모두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소문자 강남들에서 나타나는 장소의존적 이해관계와 그를 지키기 위한 헤게모니 실천들, 그리고 강남식 도시화를 통해 발현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동들이 우발적으로 결합되고 중첩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열망은 결코 도시적 스케일에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전국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헤게모니적 현상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① 여러 소문자 강남들에서 로컬한 차원에서 벌어지는 헤게모니 실천 및 그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도시 구성체들과 ② 전국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헤게모니화된 열망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자본주의가 지니는 차별적·실험적·경합적·맥락적·다형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누더기 자본주의(variegated capitalism)’ 논의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Brenner, Peck & Theodore(2010)와 Peck & Theodore(2007)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어느 하나의 선형적으로 규정된 강한 힘으로 환원되지 않는 매우 다양한 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힘들의 접합은 단지 우발적이거나 맥락적이지만은 않고 서로 간의 진화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헤게모니적인 체계와 패턴을 만들어 낸다. 특히, 이 관점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여러 다양한 조절 프로젝트와 제도적 실험들에 두고, 이들의 다중스케일적 특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특정의 표준화시키는 힘보다는 다중적인 공간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접합의 과정과 그 효과에 주목한다(Peck & Theodore, 2007).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Brenner, Peck & Theodore(2010)는 신자유주의화가 확산되는 과정을 ‘누더기 신자유주의화(variegated neoliberalization)’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들은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을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단일한 시장 질서로 일체화시키는 것으로 이해

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조절 양식의 불균등한 발전 그 자체가 불균등하게 전환하고 있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특히, 이들은 제도적 프레임의 지리적 차별성은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에 더욱 더 영향을 받으면서, 조절 양식의 공간적 차이는 더욱 더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이 공간적 차이를 심화시킨다고 해서 거시적 ‘질서-체제’가 아무런 경향과 패턴도 없이 수많은 다양성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을 통해 제도적 프레임의 지리적 차이를 만들고 변형시키는 거시-공간적 프레임과 간(間)공간적 순환과 연결의 체계는 누적적으로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바라본다. 결국 ‘누더기 자본주의’ 논의가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을 단일중심적인 공간성을 바탕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의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와 영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을 가로지르면서 작동하는 다양한 힘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매우 다양한 발전의 경로를 지니고 있고, 매우 복잡하고 얼룩덜룩한 지리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강남화에도 적용 가능하다. 앞선 논의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남화의 헤게모니적 과정은 어느 하나의 선형적으로 규정된 강한 힘으로 환원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공간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매우 다양한 물질적·담론적·정동적 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만들어진 역사-지리적 과정이다. 따라서, ① 전국적 차원에서 형성된 투기적 도시화를 지향하는 강남화의 헤게모니 구성체와 ② 여러 다양한 강남식 신도시에서 중산층의 부동산과 사교육에 대한 열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 구성체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스케일적으로 서로 얽히면서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중·다층·복합적 과정들은 단지 우발적이고 맥락적인 접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진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헤게모니적 패턴을 지닌 거대한 투기적 도시화의 사회-문화

-공간적 '질서 체계'를 형성한다.

물론 이러한 투기적 도시화를 지향하는 헤게모니적 '질서 체계'는 단일중심적인 공간성을 바탕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확장과 지배의 결과물이 아니라 다양한 중심성을 가지고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영기성기 만들어져 일사불란하지 않으며 내적 균열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불안정한 복합체여서, 변화와 전복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얼룩덜룩한 체계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누더기성이 자본주의의 임기응변적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여 주어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과 생존력, 그리고 헤게모니적 지배력을 더욱 높여주는 힘으로 작동하듯(Peck & Theodore, 2007), 강남화의 누더기적 성격도 강남화란 헤게모니적 힘의 회복탄력성과 생존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기존의 중심적 논의들이 대부분 투기 억제를 위한 경제-제도적 해법의 모색에 초점을 두다 보니, 투기적 도시화를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화-공간적 과정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투기적 도시화의 사회-문화-공간적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주류적 담론과 재현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면 강남식 도시화의 복잡한 과정과 다양한 삶의 모습, 경험, 그리고 여러 이질적인 정동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여 강남화의 실제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계론적 장소관, 정동적 도시론, 장소의 영토화, 헤게모니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강남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필자들이 제안하는 강남화에 대한 대안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강남화에 대한 분석의 초점을 대문자 강남에서 소문자 강남들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문자 강남의 재현된 환상을 복제하려는 수많은 소문자 강남들의 존재를 상상하면서, 강남화가 여러 이질적인 소문자 강남들을 생산해 내는 불균형하고 균열적이며 울퉁불퉁한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남화의 과정은 대문자 강남과 수많은 소문자 강남들, 그리고 수많은 강남들과 비강남들이 서로 연결되고 얽히고, 서로를 규정하고 구성하면서 관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소문자 강남의 주민들은 ① 2등 시민으로서의 균열적이고 불안한 감정을 표출함과 동시에 ② 주변의 다른 지역을 끊임없이 주변화하면서 '신화로서의 강남' 만들기에 열중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소문자 강남들에서는 대문자 강남을 통해 재현되는 기성의 지배적 도시의 이상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적 삶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들이 조용히 이루어지기도 한다.

② 강남화에 대한 분석의 초점을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에서 강남화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여러 이질적이고 균열적인 정동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남식 도시화에 대한 지배적 재현에서 포착되지 않는 일상적 삶의 경험과 그를 둘러싼 감각, 느낌, 정동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남식 신도시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강남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동들이 발생하며, 이들 이질적 정동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흘러가면서 강남화의 지배적 재현과 연결되기도 하고 혹은 탈구되기도 하면서, 강남화와 관련된 이상불라주로서의 집합적 도시 정동을 만든다. 따라서, 강남화를 지향하는 욕망은 투기적 이익을 챙기려는 합리적 계산과 그와 연결된 담론적 재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서와 정동들이 강남화의 울퉁불퉁하고 복잡한 지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강남화의 분석에서 강남식 도시화의 헤게모니적 영토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 집합적 정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질적인 정동들의 우발적 얽힘에 의한 것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 강남식 도시화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형성되는 장소의존적 이해관계와 그러한 이해를 지키려는 의지와 전략적 실천이 개입되어 그 도시를 지배하는 분위기와 집합적 정동과 재현들이 형성된다. 이는 장소를 구성하는 수많은 연결과 마주침의 역동적 과정이 일시적으로 응결되어 특정의 장소 만들기 실천이 헤게모니적 지위를 차지하는 순간이다. 특히, 강남식 신도시들에서는 투기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토건지향적이고 개발주의적인 성장동맹 정치, 학군과 사교육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지키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펼쳐지면서 다양한 이질적 주체, 정체성, 정동들을 모아 하나의 집단의지 혹은 도시 아상블라주로 엮어내는 도시 구성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헤게모니적 도시 구성체는 매우 균열적이며, 새롭게 발현되는 정동적 힘들과 지속적으로 갈등, 타협, 상호작용하면서 항상 생동하고 새롭게 다시 구성되는 특성을 지닌다.

④ 강남화의 누더기적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남화의 헤게모니적 과정은 어느 하나의 선형적으로 규정된 강한 힘으로 환원되지 않고, 여러 도시와 공간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매우 다양한 물질적·담론적·정동적 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만들어진 불균등하고 울퉁불퉁한 역사-지리적 과정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한국 도시 중산층의 투기적 욕망은 강남화라는 사회-문화-공간적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투기적 도시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면 강남화 과정의 관계적이면서 동시에 헤게모니적인 특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남화의 헤게모니는 어떠한 헤게모니 실천이 작동하는지,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상식이 그 요

소들을 접합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체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다. 즉, 한국의 강남화 과정은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대항 헤게모니 전략과 도시민들의 실천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투기적 도시화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전략과 관련하여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투기적 도시화를 부동산 문제로만 축소하여 경제-제도적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교육을 우선시하는 도시 중산층의 지배적 관념과 상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투기적 도시화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과 교육의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도시 중산층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 중산층의 지배적 관념과 상식, 그리고 그에 기반한 생활양식으로부터의 탈주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다양한 실천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남화의 헤게모니적 과정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대항 헤게모니 전략으로서 포스트 강남화를 위한 사회-문화-공간적 기획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원고접수일: 2023.12.04.

1차심사완료일: 2023.12.11.

게재확정일: 2023.12.11.

최종원고접수일: 2023.12.21.



**Abstract**

**Socio-Cultural Processes and Hegemonic Territoriality of *Gangnam*-ization:  
Exploring Alternative Perspectives on Speculative Urbanization**

Bae-Gyoon Park · Yangbeom Park

This paper aims to propose an alternative way of explaining “*Gangnam*-ization” by reinterpreting the process of *Gangnam*-style urbanization based on concepts such as the relational view of place, affective urbanism, networked territoriality, and hegemony. As existing studies on speculative urbanization focus on economic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curb speculation,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ocial, cultural, and spatial aspects that shape the speculative desires of the urban middle class. Based on these concerns, this paper explores the discursive representations of *Gangnam*-style urbanization, how these representations are articulated with the various affects emerging from the process of *Gangnam*-ization, and how *Gangnam*-ization becomes a hegemonic urbanity and becomes the dominant idea and common sense of the urban middle class. Through these exploration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hegemony of *Gangnam*-ization is not driven by any single central and powerful force, but is the outcome of a highly uneven and complicated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rocess that has been shaped by a complex interweaving of diverse material, discursive, and affective forces operating in a number of *Gangnam*-style new towns and at multiple spatial scales.

**Keywords:** *Gangnam*-ization, affective urbanism, urban formation, hegemony, speculative urbanization

참고문헌

- 강해주. 2020. 「[STORY & LIFE] 망국적 부동산 투기, 이제는 끝내자」. 《Electric Power》, 제 14권 9호, 78쪽.
- 고민경. 2020.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따른 도시 경험: 정동적 플랫폼 도시론(affective platform urbanism)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3권 3호, 35~47쪽. DOI: 10.21189/JKUGS.23.3.3
- 곽노완. 2012. 「도시토지공유와 주거평등권의 비전」.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3호, 238~265쪽.
- 그람시, 안토니오(Antonio Gramsci). 2006. 『그람시의 옥중수고 1: 정치편』. 이상훈 옮김. 거름.
- 김도균·양종민. 2023. 「자산경제와 정책태도: 성별·연령집단별·노동시장지위별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태도 연구」. 《경제와사회》, 통권139호, 191~231쪽. DOI: 10.18207/criso.2023..139.191
- 김승욱·이창석. 2009. 「부동산의 투자와 투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부동산학보》, 제36호, 213~226쪽. UCI: G704-001021.2009..36.013
- 김용창. 2019. 「자본주의 사적 토지소유의 역사적 한계와 대안적 토지 재산권의 구성」. 《국토계획》, 제4권 2호, 141~159쪽. DOI: 10.17208/jkpa.2019.04.54.2.141
- \_\_\_\_\_. 2021. 「부동산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와 탈취에 바탕을 둔 축적의 특성」.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3호, 41~83쪽. DOI: 10.26587/marx.18.3.202108.002
- \_\_\_\_\_. 2022a. 「구조적 자산불평등 시대 주거복지 체제 전환 전략」. 《지리학논총》, 제68호, 39~59쪽.
- \_\_\_\_\_. 2022b. 「주거 불평등과 주거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보이지 않는 대신 공약」. 《월간 복지동향》, 제280호, 21~32쪽.
- 김태동. 2019. 「부동산 개혁으로 건강한 자본주의를」. 《황해문화》, 제102호, 87~105쪽.
- 깁슨-그레이엄, J. K.(J. K. Gibson-Graham). 2013.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여성주의 정치경제 비판』. 엄은희·이현재 옮김. 알트.
- 라클라우, 에르네스토(Ernesto Laclau)-샹탈 무페(Chantal Mouffe). 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 이승원 옮김. 후마니타스.
- 무페, 샹탈(Chantal Mouffe). 2019.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새로운 헤게모니 구성을 위한 샹탈 무페의 제안』. 이승원 옮김. 문학세계사.
- 박배균.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3권 3호, 498~513쪽. UCI: I410-ECN-0102-2012-320-0017 50525
- \_\_\_\_\_. 2015. 「도시-지역 연구에서 관계론적 사고를 둘러싼 논쟁」. 허우궁·손정렬·박배균 엮음. 『네트워크의 지리학』. 푸른길. 261~279쪽.

- 박배균·장진범. 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박배균·황진태 엮음.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 투기 지향 도시민과 투기성 도시개발의 탄생』. 동녘. 13~58쪽.
- 박배균·황진태 엮음. 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 투기 지향 도시민과 투기성 도시개발의 탄생』. 동녘.
- 박종구·이영범. 2009.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부동산 공개념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2호, 203~223쪽.
- 박해천. 2013.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 백옥인. 1989. 「부동산 투기와 토지 문제」. 《기독교사상》, 제33권 8호, 43~53쪽.
- 백일순·김주락·이승원. 2023. 「도시구성체로서의 학군: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사례로」. 《공간과사회》, 제33권 2호, 132~183쪽. DOI: 10.19097/kaser.2023.33.2.132
- 서영표. 2021. 「부동산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불로소득 추구 '기회'의 평등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3호, 10~40쪽. DOI: 10.26587/marx.18.3.202108.001
- 송은영. 2022. 「중산층 되기, 부동산 투기, 사회적 공간의 위계 만들기」. 《역사비평》, 제139호, 77~104쪽. DOI: 10.38080/crh.2022.05.139.77
- 신진숙. 2021. 「도시 글쓰기를 통해 본 강남의 정동적 경관과 이상블라주」. 《문화역사지리》, 제33권 2호, 69~88쪽. DOI: 10.29349/JCHG.2021.33.2.69
- 신현준. 2016. 「아시아 도시의 대안적 공간화 실천을 위한 서설: 정동, 공간, 정치」. 《사이間SAI》, 제21호, 287~325쪽. DOI: 10.30760/inakos.2016..21.008
- 이병천. 2022. 「불로소득 자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피케티에서 크리스토퍼스로」. 《시민과 세계》, 제40호, 231~255쪽. DOI: 10.35548/cw.2022.06.40.231
- 이재율. 2006. 「투기와 거품 그리고 부동산가격의 변동: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啓明大學校·桃山學院大學國際學術세미나》, 39~55쪽.
- 이정우. 2007. 「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토지공개념 접근방법」. 《응용경제》, 제9권 2호, 5~40쪽. UCI: I410-ECN-0102-2009-320-008921078
- 이준구. 2017.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한국경제포럼》, 제9권 4호, 1~25쪽. UCI: I410-ECN-0102-2018-300-000469429
- 이진순. 1990.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전개과정」. 《철학과 현실》, 제6호, 279~296쪽.
- 이태경. 2020. 「집값의 딜레마, 필요인가? 욕망인가?: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적환수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 《황해문화》, 통권109호, 100~117쪽.
- 이항우. 2019. 「정동과 자본: 담론, 일반 지성 그리고 정동 자본주의」. 《경제와사회》, 통권122호, 243~277쪽. DOI: 10.18207/criso.2019..122.243
- 장상환. 2004. 「[특집: 토지공개념의 역사와 현실] 해방 후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투기」. 《역사비평》, 통권66호, 55~78쪽.
- 전강수. 2007.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사회경제평론》, 제29-1호,

- 373~421쪽. UCI: G704-000305.2007..29-1.025
- 전강수. 2017.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방법」. 《지역사회현안과담론》, 제16권, 145~162쪽. UCI: I410-ECN-0102-2018-300-004029009
- 조용근. 2021. 「특집 2: 투기인가, 투자인가」. 《활천》, 제813권 8호, 26~29쪽. UCI: I410-ECN-0102-2022-200-000632477
- 지주형. 2022.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경제와사회》, 통권133호, 39~107쪽. DOI: 10.18207/criso.2022..133.39
- 최시현. 2021a.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창비.
- \_\_\_\_\_. 2021b. 「주택 담보 정동경제」. 《문화과학》, 통권106호, 59~75쪽.
- 황진태. 2017.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의 구축: 부산의 '강남 따라 하기'를 사례로」. 박배균·황진태 엮음.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 하기: 투기 지향 도시민과 투기성 도시개발의 탄생』. 동녘. 396~435쪽.
- Allen, J. 2004. "The whereabouts of power: politics, government and space."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86, No.1, pp.19~32. DOI: 10.1111/j.0435-3684.2004.00151.x
- Allen, J., Charlesworth, J., Cochrane, A., Court, G., Henry, N., Massey, D., and Sarre, P. 1998. *Rethinking the Region: Spaces of Neo-Liberalism*. (1 ed.) London: Routledge.
- Amin, A. 2004. "Regions unbound: towards a new politics of place."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86, No.1, pp.33~44. DOI: 10.1111/j.0435-3684.2004.00152.x
- Amin, A. and Thrift, N. 2002. *Cities: Rethinking Urban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 Amin, A., Massey, D., and Thrift, N. 2003. "Regions, democracy and the geography of power." *Soundings*, Vol.25, No.25, pp.57~70. DOI: 10.3898/136266203820467536
- Anderson, B. 2014. *Encountering Affect: Capacities, Apparatuses, Conditions*. London: Routledge. DOI: 10.4324/9781315579443
- Anderson, B., and Holden, A. 2008. "Affective urbanism and the event of hope." *Space and Culture*, Vol.11, No.2, pp.142~159. DOI: 10.1177/1206331208315934
- Andreas, R. 2012. "Affective spaces: A praxeological outlook." *Rethinking History*, Vol.16, No.2, pp.241~258. DOI: 10.1080/13642529.2012.681193
- Brenner, N., Peck, J., and Theodore, N. 2010. "Variegated neoliberalization: geographies, modalities, pathways." *Global networks*, Vol.10, No.2, pp.182~

222. DOI: 10.1111/j.1471-0374.2009.00277.x
- Cox, K. R. 1998a. "Spaces of dependence, space of engagement and the politics of scale, or: Looking for local politics." *Political Geography*, Vol.17, pp.1~23.
- \_\_\_\_\_. 1998b. "Locality and Community: Some Conceptual Issues."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6, No.1, pp.17~30. DOI: 10.1080/09654319808720442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Blackwell.
- \_\_\_\_\_. 1985. "The geopolitics of capitalism." in Gregory, D. and Urry, J(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 \_\_\_\_\_. 1989. *The Urban Experience*. Oxford: Blackwell.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26, No.3, pp.389~401. DOI: 10.1068/d9107
- Jonas, A. E. 2012. "Region and place: Regionalism in ques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36, No.2, pp.263~272. DOI: 10.1177/0309132510394118
- Jones, M. 2009. "Phase space: geography, relational thinking, and beyon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33, No.4, pp.487~506. DOI: 10.1177/0309132508101599
- MacLeod, G. and Jones, M. 2007. "Territorial, Scalar, Networked, Connected: In What Sense a 'Regional World'?" *Regional Studies*, Vol.41, No.9, pp.1177~1191. DOI: 10.1080/00343400701646182
- Massey, D. 2004. "Geographies of responsibility."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86, No.1, pp.5~18. DOI: 10.1111/j.0435-3684.2004.00150.x
- \_\_\_\_\_. 2005. *For space*. London: Sage.
- Morgan, K. 2007. "The polycentric state: New spaces of empowerment and engagement?" *Regional Studies*, Vol.41, No.9, pp.1237~1252. DOI: 10.1080/00343400701543363
- Painter, J. 2006. "Territory-network."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Chicago, March 2006.
- \_\_\_\_\_. 2007. "Territory/Network." *CSCR Research Paper 3*. Center for the Study of Cities and Regions, Department of Geography, Durham University.
- Peck, J., & Theodore, N. 2007. "Variegated capital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31, No.6, pp.731~772. DOI: 10.1177/0309132507083505
- Pierce, J., Martin, D. G., and Murphy, J. T. 2011. "Relational place-making: the networked politics of plac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 Geographers*, Vol.36, No.1, pp.54~70. DOI: 10.1111/j.1475-5661.2010.00411.x
- Thrift, N.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86, No.1, pp.57~78. DOI: 10.1111/j.0435-3684.2004.00154.x

## 언론 자료

- 《경기일보》. 2019.01.27. "'GTX-B 예타 면제하라' 거리로 나온 시민들".
- 《경향신문》. 2023.10.24. "'제2의 강남' 송도의 역설".
- 《이데일리》. 2020.04.04. "인천 여야 후보들, 총선 첫 주말유세 '책임자는 바로 나'".
- 박경환. 2022. "인문지리학에서의 정동 개념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philgeog72/222936745887> (검색일: 2023.12.03.)